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M.E.	5월 12일(일) 11:50	6교실
2Cu.-사도들의 모후	5월 12일(일) 12:00	강 당
1Cu.-우리어머니	5월 12일(일) 12:30	보스코홀
울뜨레아	5월 19일(일) 11:40	강 당

◎ 견진성사 교육 및 전신자 신앙 재교육 안내

일시	제 목	강 사
5/17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윤 율리아 수녀님
5/24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백승준 주임신부님

- 견진성사 예식 총연습 : 6월 7일(금) 20:00
- 견진성사 : 6월 8일(토) 오전11시, 대성전

◎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안내

- 묵주기도 : 5/1(수)부터 매일미사 30분전 시작
- 성모의 밤 행사 : 5/30(목) 오후7시30분, 성전

◎ 5월 가정의 달 행사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일미사에 三代가 함께 참석하는 가정에 선물을 선사합니다.
- 조건 : 구로3동성당 교적자(가족 중 1인 이상)
- 선물 : 외식상품권, 신부님과 가족사진 촬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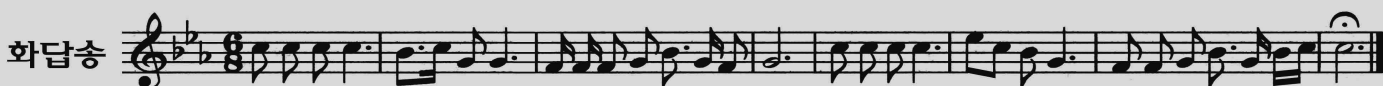
◎ 우리 가정 성모상 꾸미기

-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봉헌하는 의미로 성모상을 꾸민 사진이나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가족사진을 보내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봉헌하겠습니다.
- 제출처 : 각 반장/구역장, 총무(010-8161-8307)
- 제출마감일 : 5월 26일(일)

◎ 청년 성서모임 청년 모집

- 모집기간 : 5월 5일(일) ~ 6월 30일(일)
- 모집대상 : 구로3동성당 청년
- 모집모임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모집문의 : 신연미 가브리엘라(010-7599-3239)
- “야훼이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성가번호 ♪ 입당 : 140 ♪ 예물준비 : 220, 511 ♪ 영성체 : 137, 179 ♪ 파견 : 141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알림

- 오늘은 홍보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5월 15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레미사가 있습니다.

◎ 축구동아리 워드보스코 회원 모집

구로3동성당 내 축구동아리 워드보스코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힘차게 운동하고 싶은 모든 신자분들 환영합니다.

- 장 소 : 영서중학교
- 일 시 : 매주 주일 오후 4~6시
- 연락처 : 총무 박승현 안드레아(010-3407-6689)

◎ 교중미사 지휘자 모집(유급)

- 구로3동성당 주일 교중미사 성가대에서 지휘해 주실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 활동 : 주일- 10:30 미사(연습 : 09:00~10:00)
평일- 목, 오후 8시 연습
- 구비서류 : 교적사본, 이력서(지휘 경력)
- 이메일 접수 : jinheel1029@seoul.catholic.kr
- 마감일 : 5/25(토)까지
- 문의 : 구로3동성당 사무실(02-857-8541)

◎ 다음 주일(5/1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7구역	청 소	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5월 01일 ~ 07일)

• 교 무 금	 7,486,000원
• 주일헌금	 4,615,000원
• 감사헌금	이점임10만원 이영자50만원 최미라10만원 김숙자10만원 엄기자 5만원 박경순10만원 심정순 5만원 양옥순 5만원 황금옥10만원 구상호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5/12	구민서	오성환	김영균	하재민	홍명순
5/19	이인옥	신재순	신종구	김덕영	김성해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91. 인간에 대한 온유, 연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의 다른 피조물과도 깊은 친교를 올바로 느낄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에 완전히 무관심하며,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맘에 들지 않는 이들을 해치려는 마음을 지니면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생물종들의 매매와 맞서 싸우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피조물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들로 찬미받으소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는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92. 또한 보편적 친교에 마음을 열면, 이러한 형제애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잔혹함은 언제나 어느 모로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여서 동물을 학대하도록 이끄는 비열함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한 것이든 모든 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의 그 어떤 측면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곧 사랑을 한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피조물 보호는 서로 철저하게 연결된 주제입니다. 이를 분리하여 개별 주제로 다루면 결국 환원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사랑으로 서로 엮여서 형제자매로 일치되어 멋진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으로, 우리를 형제인 태양, 자매인 달, 형제인 강, 어머니인 대지와 온유한 애정으로 하나가 되게 해 줍니다.